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CDMO '초격차' 리더십 굳힌다

1분기 매출 1.2조, 영업이익 5807억
각각 전년비 25.8%, 35% 급증

송도·美 록빌 중심 생산체계 구축
차세대 바이오 포트폴리오 다변화
MCB 생산·백터 제작 내재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 행진이 이어졌다. 견고한 실적을 성장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현지 첫 생산거점 확보, 국내 7조원 규모의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 등을 양대 축으로 삼아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의 '초격차' 리더십 굳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1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2571억원, 영업이익은 5807억원을 올렸다고 2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5.8%, 영업이익은 35.0% 급증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당기순이익은 46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 풀가동 유지와 5공장 가동률 확대(램프업)를 반영해 지난 1월 제시했던 올해 연매출 성장 가이드스 15~20%를 유지했다. 해당 전망에는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실적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생산(CM

O) 및 위탁개발(CDO) 전 분야에서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창립 이래 현재까지 누적 수주는 CMO 112건, CDO 169건으로 누적 수주 총액은 214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한국 송도와 미국 록빌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 메릴랜드 록빌에

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최종완료해 미국 내 첫 생산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다. 록빌 시설은 6만 리터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이 가능하고 임상부터 상업 생산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갖췄다.

국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11공구에 약 7조원을 투입하는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3캠퍼스는 기존 1, 2캠퍼스와 연계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다. 오는 2032년까지 6~8공장까지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은 132만 4000 리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질적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세포·유전자치료제(CGIT), 항체·약물 접합체(ADC), mRNA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중점을 둔다.

특히 지난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ADC 전용 시설은 오는 2027년 완제의약품(DP) 라인까지 추가될 예정으로, 항체 생산부터 접합, 완제까지 항암제 시장

전반에서 고객사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마스터세포은행(MCB) 생산, 백터 제작 서비스 등도 내재화한다. 백터 구축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제출까지 9개월 내 완료 가능한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 협력한다.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 국내 거점을 인천 송도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글로벌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 바이오의약품 생태계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국내 기업과 협력해 한국으로 진출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자산 11조9950억원, 자본 7조9228억원, 부채 4조722억원 등을 기록했다. 재무상태도 부채비율 51.4%, 차입금 비율 11.6%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애경산업, 日서 'K-메이크업' 경쟁력 전파

내달 13일까지 '루나' 팝업 행사
대표제품 팁 컨실러 등 선별
메이크업 직접 체험 기회도 제공

애경산업은 오는 5월 13일까지 일본 도쿄 신오쿠보에서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오쿠보는 일본 내 한류 중심지이자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애경산업은 루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K메이크업'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루나는 '매일 새로운 나(에브리 데이, 뉴 미)'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변화하는 모든 모습을 당당히 표현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갖췄다. 이번 행사에서는 루나 대표 제품인 롱 래스팅 팁 컨실러를 비롯해 롱 래스팅 코렉터, 컨실 블렌더 팔레트, 롱 래스팅 컨실 쿠션, 버블링 겜 글로스 등을 선보인다.



루나 '매일 새로운 나(에브리 데이 뉴 미)' 팝업 현장 전경

/애경산업

롱 래스팅 팁 컨실러의 경우, 2021년 일본 유명 온라인 채널인 큐텐, 아마존 재팬 등에 입점했다. 2022년부터는 뷰티 편집숍, 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2025년 12월 기준 1만316개 매장으로 브랜드 입지를 넓혔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은 루나만의 메이

크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뷰티 구매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 층과 활발히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루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펼쳐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시지바이오 '이지메이드 TI', 美 사업 공략

美 FDA 510(k) 허가 획득

대웅그룹 특수관계사인 바이오 재생 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지난 9일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환자 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 '이지메이드 TI'가 510(k) 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 시장용 환자 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에 대해 FDA 510(k) 허가를 획득한 사례다.

FDA 510(k)는 미국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기존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절차다.

이지메이드 TI는 환자의 CT 데이터를 활용해 설계하는 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다. 두개골 및 비하중성 두개안면 결손부 재건에 쓰인다. 의료용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며 금속 3D 프린팅 기술

인 '레이저 파우더 베드 융합' 공정으로 제작한다.

미국 현지 의료진이 환자 CT 이미지를 전달하면, 시지바이오는 한국 디자인 센터에서 맞춤 설계를 진행해 5일 이내 미국 병원으로 제품을 배송한다. 이후 병원 내 멸균 절차를 거쳐 즉시 수술에 적용할 수 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미국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상, 종양 절제 수술, 감염성 두개절제술 등 후에 이뤄지는 재건 수술 시장을 공략한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시지바이오 기술력과 글로벌 인허가 대응 역량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라며 "후속 제품군의 글로벌 인허가 및 사업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IMC-002' 독성 낮추고 부작용 줄여"

이문은시아, AACR서 연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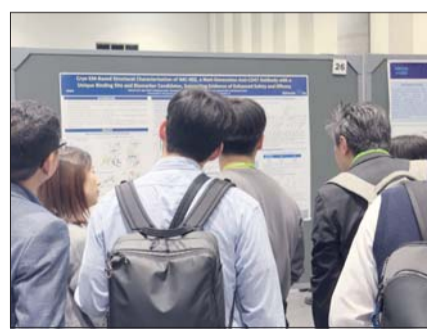
유한양행의 연구개발 자회사 이문은시아는 지난 17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6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주력 파이프라인 'IMC-002'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IMC-002는 암세포 표면의 면역 관련 단백질 CD47을 표적하는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존 CD47 항체 상용화의 한계였던 혈액학적 독성을 해결할 수 있는 IMC-002의 차별화된 기전이다.

조저은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IMC-002는 암 세포와 정상 세포 표면의 당화

패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암 세포뿐 아니라 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공격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상 적혈구 표면에는 O-글리칸이 풍부해 물리적 차단막으로 작용하는 반면, 당 구조가 다른 암 세포에서는 IMC-002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 IMC-002는 경쟁 약물과 달리 좁은 각도로 결합하는 구조를 갖춰 세포 간 응집 가능성이 낮아 안전성 측면에서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실제로 임상 1a상에서 안전성을 입증했고 간세포암(HCC) 환자 대상 임상 1b상을 완료했다. 현재 삼중음성유방암과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용요법 임상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이문은시아가 '2026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고 있다.

/이문은시아

이와 함께 이문은시아는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분석을 통해 IMC-002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했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문은시아 관계자는 "IMC-002는 기존 CD47 항체의 안전성 한계를 극복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오늘부터 장내 매수

셀트리온은 22일 이사회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점을 일부 해소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총 49만2611주,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3일부터 장내 매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단행된 것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이달 자사주 911만 주(총 발행 주식수의 약 4%)를 소각하며 주당 가치 상승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은 앞서 3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의 일환인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주주환원 조치'를 즉각 이행한 사례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자사주 소각,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약 103%의 주주환원을 달성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에서 제시한 3년 평균 목표치인 40%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이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배경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역시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의 경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확대와 신약 개발 본격화, 의약품 위탁생산 사업 성장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